

## 기업은 ‘좋은 광고’로, 미디어는 ‘좋은 홍보’로 우리 경제와 광고 산업 발전 견인해야

상반기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로 활약한 덕분에 수출이 증가하며 경기 반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 소비가 주춤하고, 대면 활동이 축소되며 경제가 다시 위축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빠르게 비대면·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전환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한편, AR·VR과 같은 실감 콘텐츠의 현실화를 통해 국내 광고·미디어산업의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우리 광고주체들은 상생과 혁신,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좋은 광고’로 제품과 브랜드를 글로벌 무대에 알리고, 미디어는 ‘좋은 홍보’로 기업인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소비자에게 전할 때, 그 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민에게는 용기를,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주협회 또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걸림돌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광고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적 성장을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